

광주경제의 핵심 자동차산업 발전 위해서는?

부품산업 육성·노사관계 안정 최우선

“전문인력 확보·수출전략 수립 힘써야”

지역경제를 이끌고 있는 자동차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품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 기술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지역 부품업체들이 기술개발을 서둘러 세계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것이다.

7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의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기술개발을 서둘러 세계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지역 부품업체들이 기술개발을 서둘러 세계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2004년부터 스포티지 등 SUV 생산으로 완성차 생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자동차 산업이 지역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또 연간 수출액은 29억4000만 달러에 이르며 종사자수도 1만2800명에 달하는 등 수출 및 고용도 지역 내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불안정한 노사관계 개선, 고급인력 확보 및 연구시설 확충 등이 개선 과제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완성차 부문 대비 부품업체 부가가치 비율은 충남(147.3%), 경기(89.7%), 부산(49.5%)보다 훨씬 낮았고 전국 평균(78.7%)에도

크게 못 미쳤으며, 완성차 업체의 지역 내 부품·소재 의존도가 34.5%로 부산(18.8%)에 이어 두번째로 낮았다.

이로 인해 자동차 생산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 부분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면서 완성차 부문의 생산유발계수는 1.2807로 울산(1.3694), 경기(1.6779), 충남(1.3836) 등 다른 완성차 생산지역보다 낮은 편이며, 부품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1.2560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무과업 입단협을 이끌어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노사관계도 국내·외 우수 기업 유치 등에 잠재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우선 한국은행은 부품업체의 성장 기반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자화·첨단화되는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기술개발과 수출 지향적인 전략 수립, 인·합병을 통한 중소기업체의 대형화와 전문화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광주지역의 자동차 기술인력 부족률이 1.1%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 관련 고급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연구개발 시설 확충 등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생산유발계수=어떤 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최종수요가 해당산업 및 타산업에서 직간접으로 유발시키는 생산효과.



광주신세계 광주점장 이·취임식 7일 오전 광주신세계 광주점장 이·취임식이 백화점 9층 아카데미 다목적실에서 열렸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박건현(주)신세계 대표이사를 비롯해 광주신세계 임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조창현(48) 신세계 백화점 부문 기획담당 상무가 광주신세계 총괄임원으로 취임했다. 조 상무는 내년 3월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며, 이장환 현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내년 3월까지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뒤 의정부정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광주신세계 제공>

올 연말정산 월세도 소득공제 받는다

신용카드 한도 연 300만원·성형수술비 제외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서민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주택월세와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됐고, 미용·성형수술비 등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이 7일 발표한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올해부터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돼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에 월세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고,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금융기관은 물론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되고, 공제금액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졌다.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 공제비율은 25%로 높아졌으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비율은 20%로 종전과 같다.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로 총급여가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엔 오는

2012년까지 30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치료목적과 무관한 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포함)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편의 증진을 위해 올해부터 ‘좋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의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이 전자파일의 영수증 금액이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자동 추출돼 회사는 영수증 금액의 정확성 확인을 위한 수작업과 종이출력이 필요없게 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나아진 경제지표… 비교해보니 전국 하위”

‘광주경제의 어제와 오늘’…대기업 부재·건설업 침체 영향

광주경제의 어제와 오늘은 어떤 모습일까.

7일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홍석)가 발표한 ‘경제지표로 본 광주경제의 어제와 오늘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의 2008년 지역내총생산(GRDP)은 21조 7453억원으로 2000년(13조1344억원)에 비해 65.6% 증가했다. 하지만 6대 광역시 중 최하위이고, 1인당 GRDP도 1500만원에 그쳐 전국 평균(2120만원)의 70.8% 수준에 그쳤다.

사업체와 종사자수는 2008년 각각 9만7511개와 46만4104명으로, 2000년보다 11.3%, 21.9% 늘었으나 여전히 6대 광역시 중 4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사업체와 종사자 모두 서비스업(89.1%, 76.0%)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제조업(7.4%, 14.8%), 건설업(3.4%, 8.8%) 순이었다.

3대 주력산업의 맹형 격인 자동차 산업은 지난해 총 매출액 5조5058억원에 종업원 6574명으로 2002년(2조 2475억원, 5135명) 대비 각각 145.0%, 28.0% 증가했다. 가전산업은 매출액 5조4548억원, 종업원 8829명으로 2002년(2조8097억원, 7042명)과 비교해 불 대 각각 94.1%와 25.4% 증가했다. 광산업은 매출액 1조6157억원, 종업원 6870명으로 2002년(2854억원, 2686명)보다 466.1%, 15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출액은 88억8300만달러, 수입은 40억8700만달러로 47억9600만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 2000년보다 수출(31억8300만달러)과 수출(18억4400만달러)이 각각 179.1%, 121.6% 증가했다. 특히 올 들어 10월 말까지 누적 수출액은 92억6600만달러

로 2007년(101억달러)에 이어 3년 만에 ‘수출 100억 달러’의 금자탑을 쌓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고용률은 56.4%, 실업률은 3.8%, 청년실업률은 7.7%로 다른 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을 보인 가운데 2000년 대비 고용률은 3.0%포인트 증가했고,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은 각각 2.8%포인트, 4.1%포인트 감소했다. 지표로도 건설경기 불황은 확연하게 나타났다. 지난해 광주지역 주택 건설 인허가는 5024호로, 지난 2003년 2만8033호보다 457%(2만3009호)나 급감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견실한 확장 국면을 지속하고 있지만 다른 광역시와 비교하면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면서 “대기업 부재와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건설업의 침체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 올해의 중소기업 대상 ‘디에스알제강’

디에스알제강(대표 홍하중)이 전남도가 선정하는 올해의 중소기업 대상에 선정됐다.

전남도는 기업의 여건 및 경영능력·사업성·기술성·노사관계 및 지역경제 발전 기여도 등에 대한 사업장 현장 실사와 심사를 거쳐 ‘2010 전남 중소기업’ 수상 기업 4곳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을 받은 디에스알제강은 와이어 로프(철강선 및 피아노선) 제조에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어 생산량의 70% 이상을 세계 10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국가의 경제발전 및 지역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금상에는 태림인더스트리(주), 은상에는 ㈜금계(대표 이현택), 동상에는 ㈜다에이취염제(대표 서호길)를 선정했다. 수상업체에는 앞으로 3년간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 경영안정자금(2%이차) 지원, 판로지원 홍보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장필수기자 bungy@

정되는 낙-아웃(Knock-out)형 예금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제한이 없으며, 최저 가입금액은 100만원으로 생계형 저축이나 세무우대저축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光銀 더블찬스정기예금 21일까지 한시 판매

광주은행은 오는 21일까지 ‘코스피 200’ 지수와 연계한 ‘더블찬스정기예금 54호’를 한시 판매한다.

이 상품은 1년제 정기예금으로 코스피 200 지수에 따라 최대 0%(원금보장)에서 최고 연 15.75%의 금리를 제공한다. 만기 지수결정일까지 기준 지수가 장중 1회라도 25% 초과 상승하는 경우에는 연 3.0%로, 20% 초과 하락 한 경우는 연 0.0%로 수익이 확

명품시계 전남/북 총판
A/S는 유명백화점 갤러리어클락 매장과 공유됩니다.

갤러리어클락 광주점
TEL. 062 233 2251
광주 동구 충장로27가 25-1번지(학생회관 후문 다이소 옆)

* 본 매장은 정품만을 취급합니다.
* 명품시계 취급점 모집

CITIZEN TechnoMarine FENDI TIMEX Salvatore Ferragamo BOSS Paul Smith WATCH CELINE COACH NIXON A AIGNER D&G

인생이 순탄하지 않으십니까?
인생의 모든 **길흉화복**은 **성명 삼자**에 다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온가족의 이름을 무료로 감정해드립니다.

신생아작명전문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이름입니다.
타고난 사주(수명)가 하나인 것처럼 자기에게 맞는 이름(운명)도 하나뿐입니다.
예로부터 사주가 좋은 거지는 있어도 이름 좋은 거지는 없다고 했습니다.

수명(사주:년·월·일·시)은 바꿀수 없지만, 운명(성명)은 바꿀수 있습니다.

1. 아무리 사주에 좋은 행운(幸運)과 복(福)이 들어있다 하여도 성명삼자(姓名三字)가 좋지 않을 때에는 필히, 불의의 재앙(災殃)과 악운(惡運)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성명삼자로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의 길흉화복(吉凶禍福) 및 재물운(財物運)을 신기하게 알 수 있습니다.
3. 성명삼자로 일평생의 모든 운(運)이 좌우되오니 이번 기회에 감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전화로 예약을 해주시기 바라며 주말에도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허가] 社團 星谷 傳統文化 硏究會 대표전화 227-2356 星谷 作名·鑑定 專門 哲學院 010-7671-5623
위 처: 동구계림동 마사회 진주가구 사거리 옆 성곡빌딩 1층